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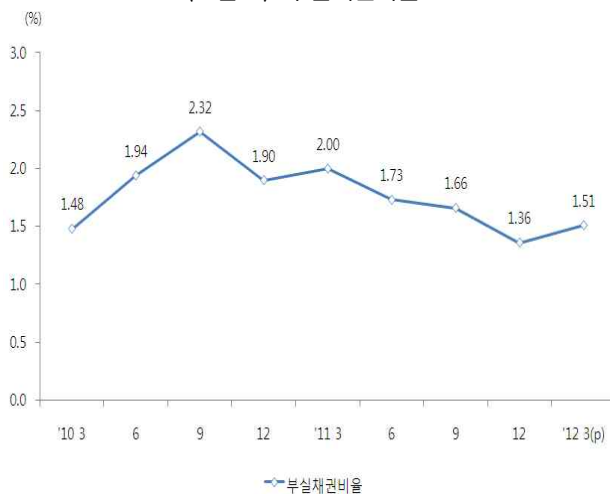
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소폭 상승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2년 3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¹⁾은 전년말대비 0.15%p 상승한 1.51%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29조 8,000억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한 이후 2012년 초 부실채권 정리실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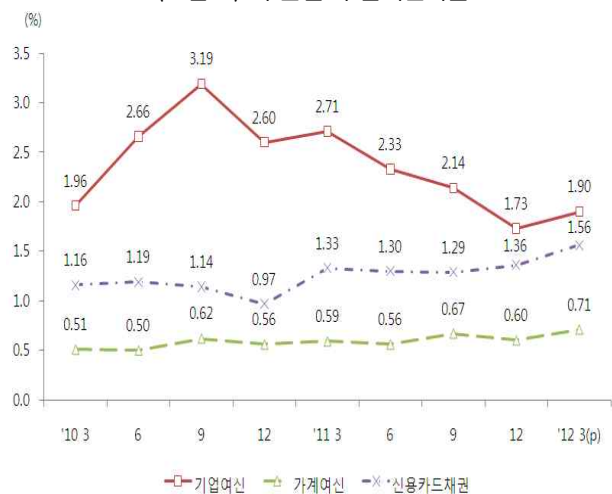
- 부문별로는 기업여신이 1.9%, 가계여신이 0.71%, 신용카드채권이 1.56%로 각각 0.17%p, 0.11%p, 0.2%p 상승함.
- 금감원은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이 주요국들과 비교²⁾하여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하여 국내은행의 위기대응 및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.

〈그림 1〉 부실채권비율



자료: 금감원.

〈그림 2〉 부문별 부실채권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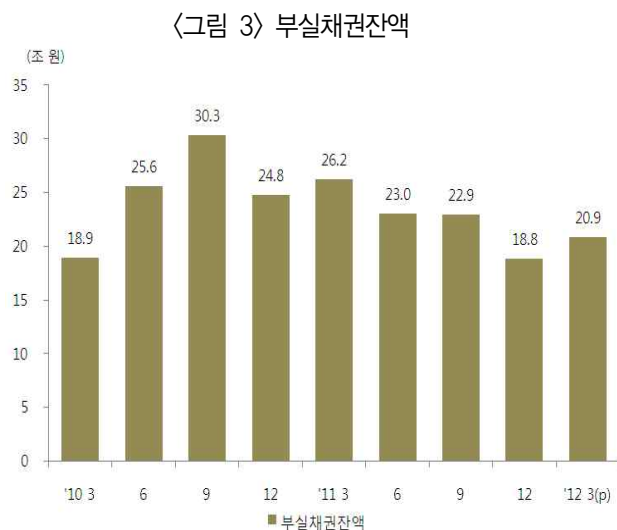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감원.

1) 부실채권비율(고정이하여신비율) = 고정이하여신 / 총여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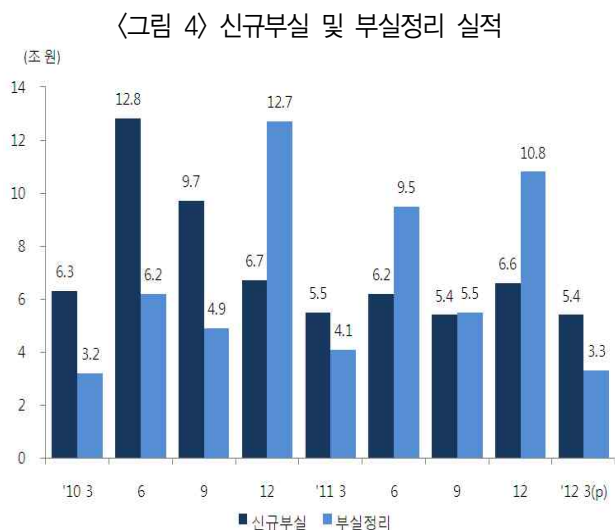
2) 미국 Noncurrent Loan Ratio(상업은행 평균, 미국 연방예금보통회사(FDIC))가 2011년 말 기준 4.14%이고, 일본 NPL Ratio(전체은행 평균, 일본 금융감독청(FSA))는 2011년 9월 말 기준 2.4%임.

■ 부실채권잔액은 2011년 12월 말 18조 8,000억 원에서 2012년 3월 말 20조 9,000억 원으로 2조 1,000억 원 증가함.

● 신규부실 발생 규모는 5조 4,000억 원이며 부실정리 실적은 3조 3,000억 원을 기록함.



자료: 금감원.



자료: 금감원.

■ 한편, 2012년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(1.8%, 0.45%p) 등으로 전년 말대비 0.2%p 상승한 1.09%를 나타내고 있음.

● 기업대출 연체율이 0.22%p 상승한 1.32%, 가계대출 연체율이 0.17%p 상승한 0.84%임.

〈표 1〉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

(단위: %)

구분	'10 3월	12월	'11 3월	6월	9월	10월	11월	12월	'12 1월	2월	3월 ^o
기업대출	1.52	1.13	1.41	1.19	1.33	1.73	1.99	1.10	1.33	1.38	1.32
가계대출	0.53	0.61	0.63	0.72	0.71	0.75	0.79	0.67	0.78	0.85	0.84
(집단대출)	—	1.31	1.16	1.88	1.54	1.48	1.60	1.35	1.50	1.70	1.80
원화대출 계	1.07	0.90	1.06	0.97	1.04	1.28	1.43	0.89	1.07	1.13	1.09

자료: 금감원.

(3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등, 금감원 등, 5/8)